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7/08

2024
통권 605호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2024년도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충분한 심을 누리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7, 8월 합본호로 인사드립니다.

사진 촬영 이상헌 집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 예배
- 교육
- 선교
- 성도의 교제
- 봉사

7월 목회력

- 05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 2차
- 07 주일 · 사랑부 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14 주일 · 제직회
- 28 주일 · 사회봉사의 날, 심방준비회

8월 목회력

- 03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11 주일 · 광복주일
- 14 수~18 주일 ·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 25 주일 · 사회봉사의 날, 심방준비회

- 06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12 금 · 특별금요산상기도회 3차
- 21 주일 · 남선교회헌신예배

- 04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1 주일~16 금 ·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 18 주일 · 상담부 공개강좌
- 31 토 ·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

만남

2024년 7/8월호

통권 605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라 김운성

영락칼럼

04 아름다운 여행 유수영

06 환경직 목사와 대한민국의 건국 박명수

해외선교 특집 열방 속으로

10 필리핀 안티폴로/인도네시아 바탐/캄보디아 포이펫

일본 오사카/몽골 거르더크/프랑스 리옹/부룬디 부줌부라

중·고등부 비전트립

다음세대 / 청년광장

25 하나님 예배하는 어린 목소리 아동부

28 아이들 찬양이 부모의 예배 되고 박지수

30 매주 '다양한 하나님'과 데이트 박현경

32 영락 교육부 'You are the Heroes!' 신지원

33 여호와 라파! 교육부 여름사역 교육부

36 기독 청년들 모인 까닭은 여태공

38 일 하시는, 위로자 하나님 곽선진

39 남을 위한 기도에 눈뿔었습니다 김정윤

기획연재

40 야곱의 손자 축복 '엇갈린 손' 정희성

만남 그리고 사람들

43 하늘에 닿은 중보기도를 보다 김경래

땅끝까지 이르러

44 복음통일! 2024 북한선교대회 한요셉

46 탁구공에 복음 신고 열방으로 양영자

영락의 울타리

48 아버지, 룡 굿바이 인재명

50 50년 나이롱 신자 "이제 옵니다" 정용성

52 더위엔 냉면 권오란

교회소식

54 특별금요산상기도회 외

60 빛으로 포착한 찰나... 같은 공간 다른 느낌 정재원

61 영락시어터 7월 상영 영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라

김운성 위임목사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출애굽기 34:29)

제 부친은 대머리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어지는 머리술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혼 청년 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른세 살의 남자였는데, 대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 여성은 살아보니 대머리와 살지 못하겠다고면서 뛰쳐나갔습니. 얼마 후 다른 여성과 또 결혼한 그는 첫 아내를 생각해서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 두 번째 여성도 집을 나갔다고 습니. 그런데 그 이유가 정반대였습니. 남자가 대범하지 못하게 그까짓 머리술 때문에 병적으로 늘 신경 쓰는 게 못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 첫 여

성은 대머리라고 집을 나가고, 둘째 여성은 대머리를 신경 쓴다고 나갔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고민하던 이 남자는 의사를 찾아갔다고 습니. 그랬더니 의사께서 하신 말씀은“머리술에 돈을 쓰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두뇌를 고치라”였습니.

저는 부친을 닮아 대머리지만, 생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 사람들이 결혼 걱정을 하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되물곤 했습니.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눈먼 여인이 있어서 결혼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습니. 그런데 제 딸들은 엄마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딸은 다행히(?) 머리술 많은 청년과 결혼했고, 아직 두 딸이 남았는데, 대머리 총각과 결혼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

하나님과 교제로 거룩해진 모세 얼굴의 광채처럼
영락 성도님들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배어나오길



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대머리라도 속이 멋진 총각이 나타나면 딸들도 변할 때가 있겠지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몇몇 권사님이 제 가발을 맞춰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그냥 덮어쓰는 가발이 아닌, 신형 가발은 제법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성도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대머리인 것이 제 전매특허와 같은데, 가발을 쓰는 순간 그게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가발을 거절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가 부럽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광채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은 그 이유를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오래 함께 있음으로 인해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 빛으로 인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기에 수건으로 얼

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배어들어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화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좋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입니다. 겉만 꾸미는 화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속으로부터 배어나는 빛,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 다시 밖으로 배어나오는 빛이야말로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 성도라면 여러 면에서 그 경건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언어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정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은은히 표정에서 배어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성도,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을 맛보며 사는 성도, 쫓기는 세상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담담함과 평온함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올여름의 특별금요산상기도회,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만남**

아름다운 여행



작은 바람에 옮겨진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시작

여린 가지로 정직하게 겨울을 보낸 나무는 초록의 작은 잎으로 봄을 빚어, 온 산을 물들이다 절정의 순간에 생명의 끈을 놓고 쉬를 취합니다. 초록이 한창일 때에는 인생의 봄만이 아름다울 거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작은 바람에 옮겨져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옮겨져있던 모든 것을 작은 바람에 속절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간직한 채 동동 떠다니는 잎새처럼, 걷다가 지치면 쉴 곳을 찾아 잠시 젖은 몸도 말리면서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봄이 겨울에게 말 없는 이별을 건네는, 눈이 부시도록



유수영 목사
제주 함께하는교회 담임
CTS 제주방송 운영이사장

푸르른 날, 얼마만큼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 말하기도 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쉬 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지나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주머니 속에 간직하여 가끔 꺼내볼 수 있다면 살아온 날뿐만 아니라 살아갈 날까지 '감사' '은혜' '사랑'이라고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부신 삶을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걸 잡을 기회를 주시는 분

노아의 방주를 현대식으로 연출한 영화 「에반 올마이티」의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하나님 역으로 나오는 모건 프리먼은 뜬금없이 방주를 짓고 있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속상해하는 여인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려 할

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잡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별할 수 있어서 기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삶의 여정을 하나님 허락한 소풍처럼 사랑하자

자연은 자연스럽죠. 눈 부신 햇살과 불을 흐르는 감미로운 바람, 이름 모를 새들의 합창, 숲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이웃을 위함이었습니다.

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사랑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생명 가득한 삶을 위해 넉넉함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자신을 곱게 물들이는 것 아닐까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짐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쯤이면 온 맘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짐 스며드는 삶이길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행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듯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풍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



망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하지 못한 사랑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다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신의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흐르는 잎새처럼,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짐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물들여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한경직 목사와 대한민국의 건국



올해 초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를 놓고 일부 사가(史家)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는데,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한 분이다.

"새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귀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월남 피난민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인으로서 해방 직후 북한에서 공

산주의 박해를 받았고,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월남한 이들은 남한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산주의의 실상을 전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이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 이런 월남 기독교인의 중심에 한경직 목사가 있다. 한경직 목사는 일제 말 일본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기독교 목사로 서구 학문과 문화를 체득한 그를 불량선인(不良鮮人)으로 취급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친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박해를 받아 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 목회 활동도 금지당했다. 한경직 목사가 해방 직후 한국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일제에 의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北에 민주국가 세우려다 소련군 진주로 좌절

한경직 목사는 해방 후 북한 사회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노력했다.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는 신의주 자치위원회를 조직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소련군은 자치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고, 한경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을 탄압했다. 결국 한경직 목사는 1945년 9월 말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소련군의 진주만 없었더라면, 북한은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경직 목사는 월남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해방 직후 귀국한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약칭 독촉중협)를 만들고 건국 운동을 전개했는데, 한경직 목사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 이 ‘독촉중협’은 김구 선생의 비상정치회의와 연합하여 비상국민회의가 되었고, 이에 한경직 목사는 평안북도 대표로 참여했다. 이후 한경직 목사는 대한민국의 우익세력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총회에 이관되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단독정부 수립)을 내리게 되자 유엔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경직 목사는 월남민을 대표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군정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에 북한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알렸다. 특별히 1947년 미육군의 전략가였던 웨드 마이어 장군 방한과 1948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시기에 월남 피난민을 대표하여 그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의 실상과 월남민의 고통을 전달했다.

영락교회 중심 반탁·반공 운동… 자유 대한민국 건국 기여

한경직 목사는 특히 기독교 내에 있는 좌파 세력과 싸웠다. 해방 직후 한국 기독교 내에는 좌익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특별히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감리

교 김창준 목사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기독교민주동맹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이 한국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한경직 목사는 여기에 대항하여 기독교신도연합회를 조직하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런 활동은 남한기독교 내의 좌익세력 약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막고 남한에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해방 직후 우익세력은 제대로 조직화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은 지상으로 나와 정국의 혼란을 틈타 폭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막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외쳤다. 영락교회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이런 반공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건국과정서 한경직과 영락의 역할 재평가돼야

오늘의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취는 해방 직후 남한 사회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승만 박사의 기여가 크지만, 한국기독교의 공헌도 무시할 수 없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한경직 목사는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강단에서 이 점을 분명히 외쳤다. 이런 점에서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의 역할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남**

열방 속으로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락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작하여 오는 9월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값지고 귀한 일이 있을까요? 전 세계 곳곳에서 땀흘려 기도하며 온 열방에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눕니다.

프랑스·독일·스위스·체코



튀르키예·그리스



부룬디





몽골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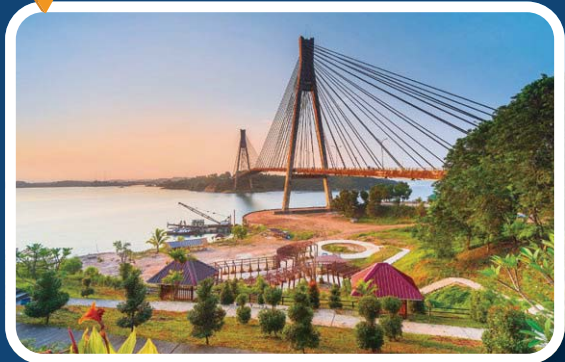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음세대 구제·치유

필리핀 안티폴로



한반도 1.3배 크기에 7,10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 필리핀은 크게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이상 세 지역으로 나뉜다.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마닐라가 있다. 비사야 지역에는 인기있는 여행지인 세부와 보홀이 있다. 최남단 민다나오 지역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이슬람 술탄이 지배했던 곳으로, 지금도 종교나 문화적으로 이슬람교의 영향이 많은 곳이다.

필리핀은 오랜 기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탓에 전체 인구의 83%가 가톨릭교도로서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다. 그러나 필리핀의 가톨릭은 토속적 신앙(정령숭배)과의 결합으로 변형된 형태로서 대다수는 복음의 본질에 무지한 상태이다.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며, 민다나오 지역에 5% 정도의 이슬람교도가 분포되어 있다.

동남아 오지 선교를 위한 교도부

수도인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안티폴로. 필리핀 다른 대도시처럼 안티폴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은 15대 명문가가 국부의 50%를 점유하는 극도의 빈부격차에다 부패지수가 아시아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부패와 정부의 무능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극빈층에 속해있다.

지난 2022년부터 안티폴로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우람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했던 김 선교사는 현재 네트워크 선교사로 영락교회와 선교적 동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지에서 마야가이 선샤인교회와 산호셉 선샤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2022년 6월에 완공된 마야가이 교회는 다음세대(어린이, 청소년) 80여 명과 성인 2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예배당 건축이

70% 정도 진행된 산호셉 교회는 다음세대 100여 명과 성인 30여 명이 예배드리며, 주말에는 교회 인근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펼치고 있다. 김우람 선교사는 다음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안티폴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예배와 구제, 장학과 교제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현지 성도들과 어린이들에게 개혁교회의 올바른 예배와 신앙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극빈층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생계지원(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우기와 태풍에 대비하여 지붕이나 외벽 수리를 돕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와 선샤인 선교센터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와 신앙수련회, 식사 교제를 함께함으로써 성도들과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 1 어버이날 캐네이션 전달
- 2 마아가이 선샤인교회 전경
- 3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과 장학 사역에 힘쓰고 있다.

올해 추석 기간(9/13~9/17)에는 제2남선교회(회장 박일수 안수집사) 회원들이 안티폴로를 방문, 선샤인교회 성도와 어린이들을 섬길 예정이다. 김우람 선교사는 보내온 현지 자료를 통해 많은 분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두 곳의 선샤인교회에서 현지 성도와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기도 제목을 전해왔다. 김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와 비전처럼 훗날 선샤인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배출되고, 현지의 젊은 성도들이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 각계각층의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함으로써 필리핀 사회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한다. **만남**

자료제공 | 김우람 선교사



기독교계관 전파 교육 선교 중점

인도네시아 바탐



바탐섬은 행정구역상으로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해 있다. 싱가포르에서 페리(연락선)로 약 45분만 가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하기 쉬운 이 섬은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탐섬의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말레이계(85%)와 중국계(14%)가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바탐섬의 인구는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덕분에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슬렘 인구를 가진 나라로,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바탐섬의 종교 분포도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지만 약 10%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 바탐섬에는 다양한 교단의 교회가 있고, 이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활동 등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종교 간의 평화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흥의 현장 ... 교육선교 1번지 진승학원

김규태, 신수원 선교사는 싱가포르인교회 파송 선교사로 싱가포르인교회가 설립한 바탐의 뚜나스 바루 (Tunas Bahru) 재단을 통해 교육·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뚜나스 바루 재단은 1993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초등학교, 2004년에는 진승중학교, 2009년에는 진승고등학교를 개교했다. 설립 초기에는 영락교회 청년부가 수년간 단기선교로 섬겼다.

‘진승중학’과 ‘진승고교’라는 교명에는 아픈 순교의 흔적이 담겨있다. 지난 2004년 8월 4일, 영락교회 중등부 단기선교팀으로 바탐섬에 왔던 진우와 승구 학생이 선교 활동 중 순교했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교명을 ‘뚜나스 바루’에서 ‘진승’으로 개명했다. 당시 이철신 담임목사를 비롯해 선교부와 제3여전도회는 진승중학교의 모든 건축 과정에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싱가포르인교회와 동역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새싹유치원 50명, 새싹초등학교 517명, 진승중학교 774명, 진승고등학교 458명이 재학 중에 있다. 이슬람 교도가 절대다수인 환경에서도 기독교 학교인 진승학원은 바탐 지역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현지 학생들에게 진학하고 싶은 학교 1순위로 꼽힌다.

9월 추석 연휴 기간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부장 최성준 장로)가 바탐섬 진승학원을 중심으로 의료선교사역을 펼친다.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자’를 구호로 내건 54명의 의료선교단원은 스스로가 먼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기도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선교 기간 중 진승학원 채플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K-ME(코리안 선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남**

자료제공 | 의료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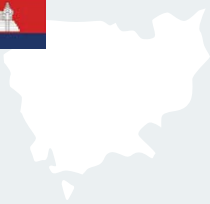
1 진승학원 학생들의 체육활동 2 진승학원 크리스마스 행사 3 진승고등학교 졸업식





배고픈 아이들에 매일 '복음 밥퍼'

캄보디아 포이펫



캄보디아 포이펫은 캄보디아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근에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가 있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캄보디아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그 화려함과 정교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보이는 앙코르와트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이 시간을 맞춰 방문하곤 한다.

포이펫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다. 이 도시는 관광객과 카지노를 찾는 도박꾼으로 항상 붐비고 있다. 카지노 산업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있지만, 도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포이펫의 교육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많은 어린이가 빈곤과 일찍부터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전체 인구의 97%가 불교 신자다. 하지만 포이펫에는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도 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를 세우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망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복음 전파

포이펫에서 사역 중인 이기원 선교사는 협동선교사로 영락교회와 선교적 동역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선교사는 교육과 복지, 의료 사역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기원 선교사의 '빵퍼' 사역은 포이펫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역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기원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특별히 노약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과 거리의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이동 급식 차량을 이용해 직접 음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대학부(부장 김종태 장로)가 7월 14일(주일)부터 20일(토요일)까지 이곳에서 해외 단기선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학부 단기선교에는 대학부 벗님들과 교역자,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41명의 선교팀원이 참여한다. 선교팀원들은 포이펫의 빈민촌에서 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사역(성경무언극, 부채춤, K-pop, 성경퍼즐, 워십 공연)과 함께 '빵퍼' '빵피'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대학부 벗님들은 캄보디아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 킬링필드 역사박물관과 앙코르 와트 비전트립도 계획하고 있다. **만남**

자료제공 |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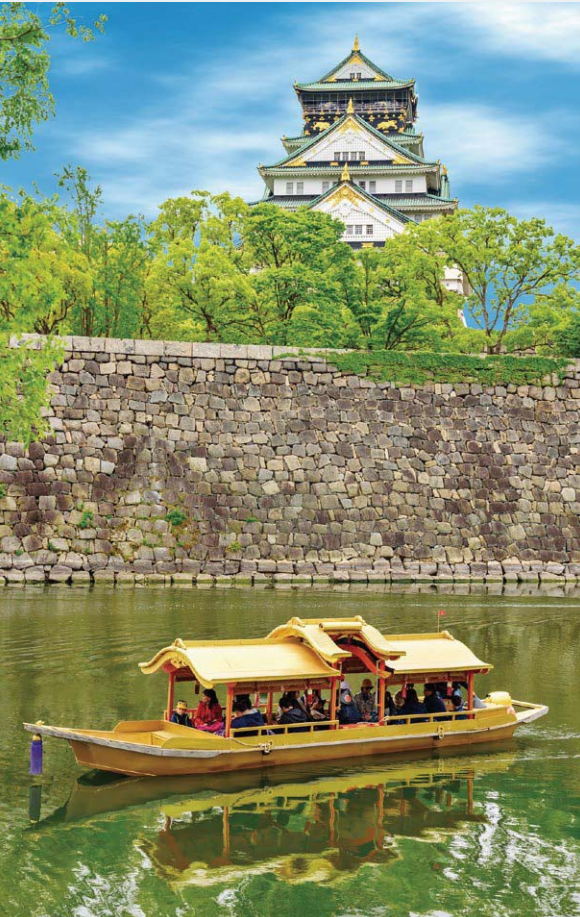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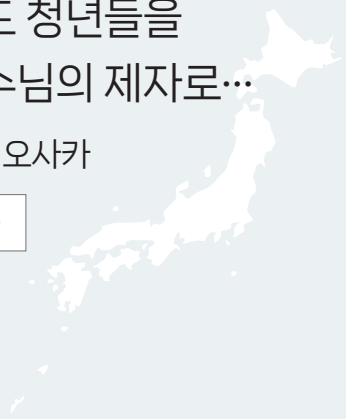


1 '빵퍼' 사역을 준비중인 봉사자들
 2 현지 어린이를 위한 '빵피' 사역
 3 어린이들과 함께 드린 주일예배(작년 9월 의료선교)



열도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본 오사카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일본의 선교 역사는 200년 이상으로 우리보다 길지만 개신교도는 0.7%에 불과한 대표적인 복음의 불모지이다. 일본인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일본의 교회 중에는 목사가 없는 무목(無牧) 교회가 많으며,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도 70세로 은퇴가 없는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전해 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일본은 관계 중심 사회로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국민성은 이지메(왕따)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아베 총리가 통일교 신도에 의해 암살된 이후로 '한국인'과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복음의 불모지

2013년에 오사카로 파송된 전효원 선교사는 네트워크 선교사로 영락교회와 선교적 동역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神道)로 대표되는 다양한 우상숭배로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 선교사는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스펠 합창, 길거리 노방전도, 소그룹 모임,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영어 교실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을 통한 전도 사역도 펼치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역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 선교사의 비전은 일본의 크리스천 청년 리더를 세



1



2

- 1 오사카 지역전도를 위한 카페 내부공사
- 2 노숙자를 위한 도시락 구제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 3 지역사회 전도를 위한 어린이영어교실

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일본은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전 선교사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노방전도를 통해 10만 명을 만났지만, 현재 크리스천이 되어 교회에 다니는 청년은 20명 내외라고 토로하면서, 먼저 전도한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하게 된다고 전한다. 일본인 특유의 ‘모테나시’(섬김과 배려)와 충성심, 성실함을 귀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전 선교사는 일본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그들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로 세우고, 열방으로 보내는 것을 궁극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난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영락선교훈련학교 비전트립팀(팀장 조원형 안수집사)이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 ‘만나보고 위로하고’(사도행전 16:40)를



3

슬로건으로 교육자와 훈련생, 스태프로 구성된 18명의 팀원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소개, 노숙자 구제 사역, 땅밟기 기도 등 현지 실정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사카와 고베, 교토를 다니며 이 땅을 축복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땅밟기’ 기도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일본 열도에 다시 열매를 맺도록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남**

자료제공 | 전효원 선교사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사막, 산맥으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내륙 국가다. 몽골은 약 330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몽골 국민의 약 98%는 라마 불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32년 전 민주화 이후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교회는 몽골인들의 가난과 아픔을 위로하며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현재 약 2.5%에 이르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

동북아를 넘어 실크로드 선교의 출발점

2017년부터 허성환 목사가 섬기고 있는 나섬 몽골 평화센터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몽골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할 때 거치는 주요 루트 중 하나인데, 이 센터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믿음의교회는 탈북민과 현지 주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배 장소로

북한 선교의 새길을 여는 교두보

몽골 거르더크



1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탈북민이 몽골을 거쳐 갔다고 추산된다. 최근에는 북한의 북경 봉쇄와 러시아의 근로자 이동 통제로 탈북자가 없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하순 영락교회 북한선교부(부장 공수일 장로)에서 몽골 평화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탈북민을 사랑하셔서 몽골을 통해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 굳게 닫혀있는 북한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 북한을 복음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와 탈북민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영락교회에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몽골의 경제 부총리를 역임했던 텐데브 테르비시디그와 전 의원과 북한선교 관계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몽골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북한선교부 방문

기간에도 같은 주제로 몽골의 전·현직 북한 관련 관료들이 참석하여, 복음통일과 탈북민 보호 사역에서 몽골의 역할이 중요함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몽골은 세계적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영하 50도를 맴도는 극심한 추위로 가축 약 400만 마리가 얼어 죽었다고 한다. 이런 혹한을 몽골에서는 ‘조드(Dzud)’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사태와 ‘조드’로 인한 자연재해로 현지 교회의 복음 사역은 큰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들었다. 작년 여름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몽골 평화센터를 방문해 건물과 시설을 재건하는 봉사와 귀한 헌금으로 교회는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 이번 북한선교부 방문 기간에는 몽골의 추위를 견딜 난방시설 공사가 절실하여 이를 도울 예정이다. 몽골 평화센터가 탈북자를 위한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면서 남북통일을 위한 몽골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만남**

자료제공 | 허성환 목사

- 1 몽골 평화센터와 믿음의교회 전경
- 2 작년 여름 몽골 평화센터를 방문한 고등부 학생들
- 3 탈북민과 현지 주민들을 위한 믿음의교회 예배 모습





세속화에 무너진 교회의 회복

프랑스 리옹



프랑스를 다시 믿음의 나라로

프랑스 동남부의 중심 리옹. 파리, 마르세유에 이어 프랑스 제3의 도시인 리옹은 19세기 말 최초의 필름 영화를 만든 루미에르 형제와 그들의 이름을 딴 루미에르(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뜻) 축제로 우리에게 빛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16세기 종교전쟁 당시 위그노들이 학살당한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2001년 협동선교사로 리옹에 파송된 고금자 선교사는 무너진 프랑스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다. 고 선교사는 리옹한인 교회를 통해 현지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유럽은 16세기 독일과 프랑스의 종교개혁,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19세기 유럽의 선교운동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오늘날 유럽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한 채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서유럽의 중심인 프랑스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조국이자 구교의 종교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위그노(프랑스 칼뱅파 개신교도)들의 나라이지만, 현재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종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본주의가 강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볼 수 있다.





드리면서 목양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 교단 목회자들과의 협력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고금자 선교사의 비전은 종교개혁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너진 교회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프랑스가 다시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다. 고 선교사는 프랑스가 종교개혁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이 유럽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오늘도 새싹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유럽 선교의 허브(hub)

프랑스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 선교의 허브(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게끔 한다. 제3남선교회(회장 강기현 안수집사)는 9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파리 근교에서 제25차 인터넷(스마트) 해외선교사역을 펼친다.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인터넷 해외선교에는 유럽 9개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15명의 가정을 초청할 예정이다. 주요 사역으로는 IT 교육, 선교사 가정을 위한 건강검진(초음파검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사역, 찬양 집회 등으로 이루어지며,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선교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만남**

자료제공 | 고금자 선교사

- 1 리움 한인교회 고금자 선교사와 제직들
- 2 K푸드 전시회에서 주불 한국대사와 함께
- 3 리움 한인교회 어린이들의 찬양
- 4 제직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최빈국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부룬디 부줌부라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 부룬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국가로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면적에 약 1,200만 명이 살고 있다. 평균 해발 1,700미터의 고산지대에 연평균 기온이 26°C로 살기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부룬디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미화 22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162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 식민시대 때 생겨난 부족 간 갈등의 역사와 그 여파,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부룬디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룬디의 종교는 가톨릭 60%, 개신교 15%, 기타 토속신앙과 이슬람이 25%를 차지한다. 부룬디는 교육받은 목회자가 적어 이단의 침투가 쉽고 이단 교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 성경 보급과 신학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계 최빈국으로 국민 대부분이 절대빈곤에 놓인 만큼 구제 사역 역시 필수적이다.



가난의 땅에 뿌리는 예수 사랑의 씨앗

총회 파송 선교사로 2015년 처음 부룬디 땅을 밟았던 강병화 선교사는 2020년 8월부터 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 동역하며, 부룬디의 최대 도시 부줌부라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 강 선교사는 유치원 사역으로 156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초등학교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 2019년부터는 현지 어린이들의 '삶과 건강, 교육, 평등'이라는 비전 아래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급식, 초음파검사 지원, 위생교육을 통해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태양광 및 상수도 발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급수 사역, 컴퓨터 교실 운영, 무료진료, 식료품과 장학용품 지원 등의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ECCA 교단과 협

력을 통해 현지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며, 기독교 교육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부룬디의 교회들이 올바른 말씀 선포와 교육, 돌봄을 통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제3여전도회(회장 박정운 권사)는 회원들이 지난 6월 24일(월)부터 7월 3일(수)까지 부룬디 부줌부라를 방문했다. 유치원과 임산부를 위한 사역현장 등을 살펴보고, 9월 개교 준비 중인 룬도초등학교 시설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에는 1,500명의 아이들과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가졌으며, 난민촌 시장 체험, 부룬디 대학교 키리리 캠퍼스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만남**

자료제공 | 강병화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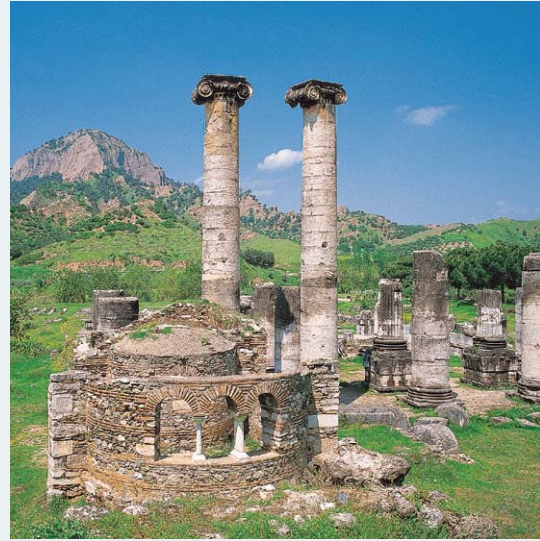


- 1** 9월 개교 준비 중인 룬도초등학교
- 2** 부룬디 부줌부라를 방문한 3여전도회 회원들
- 3** 2019년부터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 중등부 비전트립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는 8월 8일(목)부터 17일(토)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비전트립을 진행한다. ‘복음의 흔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비전트립은 사도바울의 발걸음과 복음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비전트립에 참여하는 중등부 학생들은 이 여정 속에 새겨진 복음의 흔적을 따라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 비전트립팀은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로 이어지는 일정을 통해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했던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흔적을 둘러볼 예정이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 하나인 사데교회 유적지(사진 김한기 작가)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 고등부 비전트립



체코 프라하 비츨라프 중앙광장과 안 후스 동상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뱅이 했던 유명한 말이다.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8월 9일(금)부터 17일(토)까지 유럽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비전트립을 진행한다. ‘요셉 프로젝트(Joseph Project)’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비전트립에서는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주요 종교개혁지를 둘러보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유럽본부와 WTO(세계무역기구) 본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만남**



하나님 예배하는 어린 목소리

영락아동부 어린이 주관예배
유년·초등·소년부로 나눠 드려
설교·인도·찬양·광고 직접 수행

아동부(유년·초등·소년)에서는 6월 16일 주일예배에 어린이 주관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고, 참여적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2년간 '아동부 통합 주말학교'인 어린이 예배자 학교(Worship in the story)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예배자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참여적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년부(부장 임영환 장로)는 2학년 어린이, 초등부(부장 오현택 장로)는 4학년 어린이, 소년부(부장 조용철 장로)는 6학년 어린이들이 주관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예배팀을 지원한 어린이들과 담당 교사들이 세워져 두 달 전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 어린이 주관예배...한 뼉 더 커진 믿음 이야기

유년부

조희주(예배인도) 전도사님처럼 예배인도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연습할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김예승(광고) 떨리고 긴장돼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끝나고 나니 뿌듯했어요.

진세린(광고) 연습 많이 해서 자신 있었어요. 박수를 받아서 기분도 좋았어요.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소년부

최수아(설교) 하나님 말씀을 많은 친구 앞에서 설교하며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은혜 넘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은성(예배인도)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김하준(성경봉독) 어린이 주관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유민(찬양팀) 준비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관하는 예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유주(찬양팀)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축복 받는 느낌이 들어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지아(찬양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생각에 자신감이 넘쳤고, 우리들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진아(찬양팀) 교회에 친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찬양팀 하면서 친구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아요.

이요셉(봉헌특송)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잘 드러지기 위해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원준(봉헌특송, 피아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은혜로웠습니다.

박효원(광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서 뿌듯했습니다.

이은율(설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전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초등부

김주형(설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생각보다 더 떨렸고 어려웠죠.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어요.

전은설(찬양인도)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했고 찬양인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죠. 찬양하는 게 정말 좋아요.

윤예준(찬양인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어요.

이루리(예배인도) 긴장되는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태선(성경봉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갈유은(찬양인도) 찬양인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화(양상별 첼로) 긴장도 되고 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예배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하울(양상별 첼로)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가 예배 때마다 느끼는 긴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관예배의 기회가 많이 오면 좋겠어요.

유하준(악기팀 드럼) 어린이 주관예배에서 드럼 연주를 맡았는데 직접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재미있고 뿌듯했습니다.



강은우(악기팀 드럼)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었고, 드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송승규(찬양팀) 많이 틀리긴 했지만, 친구들이 응원해주어서 더욱 힘을 내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신예원(찬양인도) 엄청 떨렸는데, 모두 함께 해주어서 정말 감사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 찬양이 부모의 예배 되고

영아 2부 펑귄반 이승이 엄마 박지수 성도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둘째 승이가 22개월 되면서 영아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영아부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위로와 회복의 은혜 나누는 영아부

사실 작년 여름 남편이 허리디스크로 약 석 달을 누워있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묻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둘을 데리고 혼자 교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영아부 펑귄반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이 예배에 나가지 못해도 전화로 기도해주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을 대신해 기도해주시며,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질 만큼 기도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후 남편의 허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까 고민하며 주변을 돌아보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아부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주신 사랑과 회복을 다른 가정과

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영아부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강한 감동으로 눈물지를 때도 많았어요. 아이들의 몸짓과 찬양 고백이 부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고 첫 달부터 4월에 있을 영아부 특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새벽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중에 머릿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아이들을 옷 입히고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데려오는 일이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승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승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승이가 되고, 그렇게 키우는 엄마가 될게요'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영아부 첫 특송에 참석하면서, 엄마로서 그



하나님 사랑의 실제판 된 영아부 소풍

지난 5월 영아부 식구들과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이 소풍이 영아부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소풍을 위한 돛자리와 커피, 그리고 맛있는 과일과 김밥도 준비해 갔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얼굴을 잘 마주하지 못했던 다른 조에 속한 가정들과도 인사하며 즐겁게 보냈답니다. 짐을 바리바리 들고 유모차까지 끌면서 걸어가는 길이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실제판을 영아부 소풍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신 모든 손길의 섬김에 정말 감사했어요. 영아부는 하나님의 사랑 실제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느라 때로는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각 가정이 모여 이내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이곳이 바로 영아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영아부 교역자,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시간을 준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랐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머물렀지만, 이번 특송을 통해 몸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영아부 교역자, 선생님들께서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실 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준비하신 것 같을까?' '어떻게 엄마의 필요를 잘 아실까?' 섬겨주시는 분들의 헌신과 마음에 늘 감동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섬겨야겠다는 배움을 깨달았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아부는 감동과 사랑입니다!

박지수 성도
용인·화성교구
영아2부 이승이 엄마



매주 '다양한 하나님'과 데이트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와 주님을 붙드신 어머니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아프셨던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의 꾸준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어머니와 함께 초등부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 겨울 아침, 아버지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로 가족 모두 큰 슬픔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교사로 섬김,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전 직장 동료 선생님을 통해 영락교회 4여전도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목요제자훈련을 통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초등부 교사로 섬길 것을 제안하셨지만, 저는 선택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타 교회 부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며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 자리였음에도 직장에서 만나는 원장 선생님, 직장 동료, 학부모를 교회에서도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자리를 직업의 연장선으로 여기던 연약한 저였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니 '내가 또

성경퀴즈대회
'도전! 성경골든벨'에 참여해
화~알짝 웃는 김다연,
박현경 집사(필자), 임나단,
엄세준 초등부 어린이



섬김의 자리를 일로 여겨 부담스러워하고, 은혜로 채워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지로 십자가를 쳐서 구원을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저를 세워주셨고,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표정과 만납니다

현재 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마치 새로운 데이트처럼 즐겁고 감사합니다.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지 못한 아이들을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도사님께 들은 말씀을 주간 적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평생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세족식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봄맞이 행사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날씨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박 3일 동안 땀 흘리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창조 목적을 확인하고,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친구초청주일(One and All Festival)에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두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기도하던 친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 잔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박현경 집사 _ 노원교구, 초등2부 교사

영락 교육부 'You are the Heroes!'



5월 30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는 맛있는 바비큐 냄새와 즐거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손님들 덕분에 이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 주일, 전 세대 예배, 교육 주일 등 5월의 다양한 행사를 마무리하며 교역자 섬김의 날을 맞이해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 교육부 부장으로 섬겨주시는 '박홍준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육부 차장, 담당권사, 서기, 회계를 맡고 계신 임원분들과 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까지 격려차 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 내 바비큐장은 교육부 임원분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잔치의 현장이었습니다. 레드카펫 앞 환대를 시작으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는 요리사 모자를 쓰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채소, 음료, 과일, 디저트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열심히 준비하신 임원분들의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분의 귀한 섬김으로 맑고 푸른 날 아차산 나무 아래에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풍성히 준비해주신 선물로 경품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첨자가 호명될 때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부장 박홍준 장로님을 비롯해 교육부 임원분들의 소중한 마음 덕분에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락 교육부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섬김의 시간을 통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다시금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언제나 영락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교육부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호흡하며 발맞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셔 참 든든합니다. 교육부를 통해 믿음으로 다음세대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만남**

신지원 전도사
초등부



치유의 주님에게로! 여호와 라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여호와 라파)!'를 이번 여름성경학교 공동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라파(Rapha)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세대들의 정서적 고민을 위로하기 위한 배려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7월 6일 영아부와 베드로부를 필두로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여름, 신나는 여름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영락의 가정들이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 공동주제 : 9191(구원구원) 라파 키즈(시편 30:2)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6일(토)~7일(주일) 장소: 영락교회

첫날 오전 신나는 뮤지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라파 패밀리' 캠프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별 공동체 미션과 가정 미션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20일(토)~21일(주일) 장소: 영락교회

뮤지컬 형식의 여는 예배로 시작하여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성서학습과 특별학습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시원한 물놀이로 첫째 날을 마무리하고, 주일 유치부 예배 시간에 '라파 키즈' 출정식이 펼쳐집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13일(토)~14일(주일) 장소: 영락교회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신나는 뮤지컬 예배와 부모님들을 위한 특강,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는 성서학습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특별학습을 통해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봅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 주제: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당당한 바울(사도행전 20:24)

일정: 7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가평우리마을(경기도 가평)

바울의 전도여행 체험기, 성경 연극, 두 차례의 집회를 통해 사랑부는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공동주제 : SOS! 라파 구조대!(출애굽기 15:26)**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영락교회

예배와 성경공부, 말씀을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주제 활동과 물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려 합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파주 영산수련원

'도와줘요 라파맨', '위기탈출 라파원', '미션! 라파서블' 등의 프로그램과 치유와 관련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일정: 7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강화 계명수련원

'우리는 한마음 라파 구조대' 활동과 어드벤처 콘셉트로 진행되는 '파워 업 챌린지', '조별 미션 탐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어린이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CebC 여름캠프

▶ **주제:** God is always with us(마태복음 28:20)

일정: 8월 9일(금)~10일(토)

장소: 영락기도원

즐거운 말씀 공과 시간, 흥미로운 게임과 물놀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캠프 기간 동안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며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중등부 여름수련회

▶ 주제: SUPER GREAT(시편 70:4)

일정: 7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고등부 여름수련회

▶ 주제: FOM(Fisher of Man)(마태복음 4:19~20)

일정: 7월 26일(금)~28일(주일)

장소: 홍익대 만리포수련원

사흘간의 예배와 말씀묵상,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심의 미학, 캠프파이어, '어노인팅' 예식을 진행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여름수련회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부 여름수련회

▶ 주제: Arise!(열왕기상 19:1~8)

일정: 7월 6일(토)~7일(주일)

장소: 영락기도원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말씀집회 중심으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벗님들도 인생의 시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고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

▶ 주제: Turn around(신명기 6:4~5)

일정: 8월 8일(목)~10일(토)

장소: 태안 라모스리조트

박성민 목사님(사단법인 청년선교본부장)을 주강사로 모시고 두 번의 집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집회와 학생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턴어라운드(turn around)'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청년들 광화문에 모인 까닭은?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인천 주안장로교회, 파주 한소망교회 청년들이 한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예배하고자 마련한 연합청년기도회가 지난 6월 5일(수) 오후 8시 30분 새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번 기도회는 연합되어 단단해질 청년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였다. 백석준 새문안교회 청년부 목사가 인도하고 김장훈 주안장로교회 청년담당 목사가 '연청, 경계를 넘어서'(빌립보서 1:1~11)란 말씀을 선포한 이번 집회에서 청년들은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닮는 청년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자고 다짐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자" 다짐

올해 영락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다양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청년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신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한마음기도회가 2월부터 5월까지 세 번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청년이 기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4월 4일(목)에 있었던 기도회에서 장신대 후배들을 위해 설교하신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유머에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신학생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은 감동적이어서 영락교회 청년들에게 꼭 참석해보기를 권장합니다. 하



여태공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있다면, 기도의 통로가 닫혀 답답한 마음이 있는 신 청년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경험을 해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월 5일에는 '연합청년기도회'가 새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압구정 소망교회, 파주 한소망교회 등 5개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 모인 기도회에 영락교회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새문안교회를 처음 방문한 저는 이전부터 궁금했던 새문안교회 갤러리 등 교회 시설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았습니다. 집회 찬양을 한소망교회에서 인도했는데, 열정적이고 뜨거운 찬양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듯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도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의 조명 연출이 인상적이었는데, 조명사업을 하는 형제님이 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풍성한 찬양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회를 위해 파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인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참석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 기도제목' 주제로 열정적 토론

밤 11시 30분까지 진행된 뜨거운 찬양, 말씀, 기도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5년 단위로 나뉘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장 뒷세대인 90년생 이상 그룹에서 '배우자 기도제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또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만, 각자의 생각, 가치관, 상황이 달라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헤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쉽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가? 하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고민에 공감은 하지만, 선불리 개입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진솔하게 꺼내 보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나누지 않는다면 겉도는 이야기로 빠지기 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속한 조에서 한 자매님이 용기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저도 비슷한 고민과 경



새문안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연합청년기도회

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매님은 제 경험과 생각이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자주 교류하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새문안교회 청년들과도 인사하며 교류와 합동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영락교회에서 섬기신 신민재 전도사님이 새문안교회 청년2부 담당 교역자로 계셔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열정적인 찬양과 많은 기도제목, 그리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의 만남으로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여름사역 이후 제2회 연합청년기도회가 기획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보길 바랍니다. **만남**

일 하시는, 위로자 하나님



곽선진 성도
대학부 웰컴마을

새 벗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저는 올해 1월 첫째 주에 우리 대학부에 새로 오신 벗님을 환영하는 담당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신 벗님 중 한 분은 "할머님이 딱 2주만 교회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셔서 나오게 됐다"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벗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상 나눔으로 가족모임을 시작하던 어느 날, 벗님은 "요즘은 한 주가 주일 위주로 흘러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가족의 리더로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경험입니다.

캄캄한 어둠 '오선진'에게 빛으로 오신 성령님

웰컴마을 리더로 새 벗님들을 섬기게 되면서, 처음엔 고되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외로워지기만 했습니다. 일명 '오선진'(오열하는 선진이라는 뜻)으로 부르던 이 시기를 지나고

있던 중, 가족 벗님 중 한 사람이 번뜩이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랜덤으로 뽑아 한 주 동안 기도해주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적어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벗님이 가족을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리더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제 이름을 뽑은 벗님은 제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적어 주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미처 나아가지 못할 때도,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도, 한없이 약해질 때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자녀 된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눈물, 연약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꼭 맞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남은 한 해를 기도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만남**

남을 위한 기도에 눈뿔었습니다



김정윤 성도
대학부 모세마을

당연한 것 같던 순간마다 벗님들의 사랑이 보여

처음 리더를 맡게 되었을 때는 솔직히 자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GBS(Group Bible Study, 조별성경공부), 두 번째 GBS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친구들의 도움 없이 GBS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날 스스로의 부족함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모태 신앙에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 그래도 남들 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알 것 같았지만, GBS 시간이 다가오니 혹여 내가 잘못된 답을 말할지 걱정하게 되었으며, 벗님들의 신앙적 고민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자, 위로가 됐던 것은 LTC (Leadership Training Courses, 리더양육훈련)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리더를 하는 선배이자 동역자인 언니 오빠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런 생각과 시선으로 벗님들을 바라보시는구나' 하며, 저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부족했던 제 생각과 모습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토록 많은 GBS와 모든 행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해왔던 큰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번 기도 짧아 머쓱... 벗님 위한 기도 터져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리더 활동을 통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성장은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금요기도회나 주일에 늘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의 기도가 민망하고, 남들보다 너무 일찍 끝나는 기도에 머쓱하기도 했습니다. 리더를 하면서 처음으로 벗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가 짧았던 이유, 민망했던 이유는 '내가 해야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주 나누는 벗님들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벗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됨을 느낄 수 있었고,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과 그 변화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두려운 순간마다 주님 인도 믿습니다

앞으로 리더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그리고 GBS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조원)을 만들어나가실 하나님 은혜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치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성장하는 제가 되기를, 벗님들과의 나들이에서 즐겁게 끊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만남**

야곱의 손자 축복 ‘엇갈린 손’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아버지 속여 형 대신 장자 축복 따낸 야곱

야곱은 성서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벡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보다 잘될 아들이라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두 번이나 만나주셨다. 먼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으뜸사람(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야반도주한 야곱이 깊은 밤 갈 곳 몰라 두려움 속에 잠들었을 때 그곳 베엘에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함께하시겠다 약속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 직전 압복강가에서였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일이 두려웠던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동틀 무렵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에게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축복하셨다.



정희성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파란만장 삶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 맞아?

그런데 이상하다. 야곱이 에서보다도 더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에서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살며 재산을 혼자 다 물려받았고, 나중엔 인간성마저 좋아졌다. 반면, 야곱은 고향을 야반도주한 이후 오랫동안 타향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원주민에게 겁탈당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일찍 죽었다. 또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관계하는 치욕도 겪었다. 부인 둘, 첩 둘, 배다른 열두 아들 간 시기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야곱은 노년에 타향에서 자신의 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나그네 길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창세기 47:9)라고 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으뜸사람 축복을 받은 것이 맞는가?

속임수·경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장자 확증받아

목회 상담 관점에서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으뜸사람 된 후 성격이 변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 일환으로 야곱의 육신의 부모와 가족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속임수·꿈수’와 ‘지나친 경쟁’의 성향이다. 즉,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꿈수를 썼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의 축복권을 뺏을 때는 아버지를, 타지에서 재산을 불릴 때는 외삼촌

과 사촌들을 능수능란하게 속였다. 그런가 하면 경쟁심 역시 야곱 가족에게 만연한 특성이었다.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끊임없이 경쟁했고, 야곱의 배다른 열 아들도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하며 어린 동생 요셉을 제거해 버리려고까지 했다.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야곱 역시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고, 장성해서도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 호시탐탐 노렸다.

하지만 야곱은 오랜 나그네 여정 후 마침내 ‘속임수 꿈수’ 사용을 포기했고, 경쟁심도 다르게 사용했다. 나그네 여정 이전에 형의 축복을 뺏고자 에서로 변장했을 때의 야곱을 보자.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이 의심스러워 “너는 누구냐” 두 번이나 물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만아들 에서라고 뻔뻔하게 속였다(창세기 27:24, 32). 그런데 오랜 나그네 여정 후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옛날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 물으셨다. 이에 야곱은 이전과 달리 “야곱이니이다”(창세기 32:27)라고 정직하게 답했다. 오랜 환란과 고통 후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사기꾼 야곱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야곱은 온갖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뺏고자 경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으뜸사람 된 야곱은 뻔뻔하고 압복강가, 특히 압복강가에서 그 특유의 경쟁심을 활용해 하나님을 이겨 먹을 기세로 씨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으뜸 자녀가 되었다는 특별한 확증을 받았다.

이삭 아닌 리브가에게 먼저 알린 하나님의 뜻

한편, 목회 상담 관점에서 더욱 주목하는 으뜸사람 된 야곱에게 축복은 아버지 이삭도 모르는 것을 야곱은 알



았다는 것에 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이었던 탓에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며 자랐다. 이복형제 이스마엘이 있긴 했으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크기 전에 이스마엘을 멀리 내보내었다. 그래서 이삭은 으뜸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노린 형제간 갈등도 겪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도 골라줬다. 또 이삭의 부인은 평생 리브가 한 명뿐이어서 이삭은 부인 간 갈등으로 속앓이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이삭은 물려받은 넉넉한 재산, 사랑하는 아내, 쌍둥이 아들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평탄히 살았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다.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은 ‘아브라함-이삭-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리브가-야곱’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삭보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챘기 때문이다. 가령,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이삭은 끝까지 이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셨는지도 알지 못해 오히려 다른 상속자

를 축복할 뻔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삭은 리브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잘못 축복할 뻔하기조차 했다. 이렇게 이삭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평탄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까지 알지 못했다.

약점투성이였기에 더 갈구한 야곱의 깨달음

이삭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탁(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생의 다사다난한 경험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갔던 야곱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신탁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분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신탁 없이도 열두 아들의 은사를 분별하여 고루고루 구체적으로 축복했다.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는 절정에 이른다. 이집트에서 유력 인물이 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도록 했다. 야곱은 오른손은 둘째 아들 머리에, 왼손은 첫째 아들 머리에 얹어 놓았다. 이에 요셉이 깜짝 놀라 오른손은 첫째 머리에 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창세기 48:19)라고 말하며 자신의 엇갈린 축복을 계속했다.

인간은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더 탐구하며 알고자 한다. 성서의 누구보다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야곱, 성서의 누구보다도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은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망했고,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했고,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나아갔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는 그런 경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뜻대로 고루 나누는 것

‘혼자 다 가지고 싶었다. 혼자 다 가질 줄 알았다. 그러나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으름사람의 축복을 빼앗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을 자신이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랜 나그네 여정 후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함께 고루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두 아들을 고루 축복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야곱은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기에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적과 부정의에 예외일 수 없었다. 타향살이 나그네로, 고향당한 딸의 부모로, 반항하는 아들의 아버지로 살았던 야곱은 이 땅의 시들어가는 모든 것, 죽어가는 모든 것, 아파하는 모든 것을 마주 대하고 껴안으며 보듬어야 했다. 결국 야곱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자신에게 잘한 자식, 못한 자식 상관없이 그 받은 은사를 구별하여 고루고루 축복했다.

오늘날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만용과 왜곡 속에 죽어가는 것, 시들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듬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축복해주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으름사람 된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만남**

하늘에 닿은 중보기도를 보다



김경래 원로장로
빛소금교회
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 부이사장

97세 생일전야 중환자실로 실려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살아 나왔다. 가족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부르짖는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간증하고 싶다. 지난 4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119 구급차에 실려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반신불수 상태로 아무 말도 못 한 채 누워있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병원은 적막했으나, 당직의가 마침 신경과 의사였기에 완벽한 처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의식은 있으나 손발은 경직되고 말도 못 한 채 불구에 가까운 상태로 중환자실의 첫날밤은 깊어 갔다.

나를 위한 '통성기도' 낮익은 소리가 들리다

자정 무렵 비몽사몽 간 낮익은 통성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고막을 울렸다. 그리고 여러 갈래의 기도들이 아름다운 색 줄기를 이루어 하늘로 올라갔다.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기도 소리 중에는 아버지의 97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에서 온 딸들의 부르짖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지켜달라는 성도들과 동료 장로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신기하게 들려왔다.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일가친척, 심지어 내가 섬긴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이미 별세한 몇몇 목회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김준곤 목사와 조용기 목사는 웃으시면서 “돌아갔다가 그때, 그 시간에 오라” 하며 타일렸다. 나는 이 소리가 바로 나의 급변 소식을

듣게 된 성도들의 중보기도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새벽 5시경이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어르신, 아까 찬송가 부르셨지요? ‘할렐루야 아멘’도 몇 번 하셨어요” 나는 다음 순간 “아~ 아~ 그래요?” 하며 말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손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중보기도 멀리한 독선적 신앙 버리기로

병원에서의 이튿날 4월 3일은 공교롭게도 나의 아흔일곱 번째 생일이었다. 그날 아침 새로 태어남을 느꼈다. 이날따라 병원식은 미역국이었다. 그 후 3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주치의 처방에 따라 하루를 일반병실에 머문 후 입원 닷새 만에 퇴원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범사에 함께하셨음을 믿는다. 그날 아침 7시 18분경 오찬 약속 확인차 전화를 한 둘째 딸은 내게 사고가 생긴 줄 직감하고, 종로에서 마포 집까지 단번에 달려와서 119를 불렀다. 다행히 ‘골든타임’이 남아있었다. 의료 파업 중임에도 응급실 당직이 신경과 의사였고, 중환자실의 병상도 여유가 있었다. 그 무엇보다 릴레이식 중보기도의 응답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나는 퇴원 후 천국에 갔고 가지 못할 세속적인 물질이나 가치관들을 가차 없이 정리하고 상대화하는 길을 향해 걷기로 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멀리한 독선적 신앙을 버리기로 했다. **만남**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소서

2024 북한선교대회가 지난 6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더딜지라도 이르러라!'(하박국 2:3) 주제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한 이번 선교대회였지만, 주님은 이런 위기일수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듯 공식적인 개막일에 앞서 '북한선교를 위한 30일 기도카드'로 북한선교대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선교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북한선교를 주제로 매일의 기도제목을 성도들에게 배포했고, 성도들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통해 구역과 부서, 소그룹 식구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월 5일부터 3주간 매주 수요기도회는 북한동포사랑 기도회로 드리며 자유인 간증과 북한선교 영상을 통해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공유했고, 15일(토)에는 최전방 송악기도처에서 120명이 넘는 많은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복녘땅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기는 21일(금) 저녁 북한선교 특별금요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한요셉 안수집사
강남교구
북한선교부 홍보팀장

16일(주일) 오후 선교관에서 열린 '영락포럼'에선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강인덕 은퇴안수집사님이 '복음통일의 접근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대북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들려주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기도로 복음통일을 준비하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방송 송출 능력과 북한에 보급된 500만 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풍선 등에 성경을 담아 전달하는 방안, 복음통일을 위한 다양한 소그룹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도하라!

북한선교주일로 지킨 6월 23일, 영락교회는 북한선교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님은 사무엘하 5:1~5절 말씀을 바탕으로 북한선교주일 메시지를 선포했고, 베디니광장에서는 다양한 북한선교 행사가 종일 펼쳐졌습니다. 광장에 크게 펼쳐진 한반도 지도 위에서 복음통일을 외치며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땅을 밟으며 올라가 복음통일의 종이 울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진 순간, 함께 모인 성도들 모두에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김운성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은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카드를 작성하며 한마음으로 북한교회의 재건을 염원했고, 저 또한 외조부 고향인 평안남도 평원에 교회가 재건되길 기도하며 카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베디니광장에 전시된 북한선교 사진전은 과거 평양을 중



6월 23일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배다니광장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참여행사가 펼쳐졌다.

심으로 시작된 영적 대부흥의 역사와 환경적 목사님의 초기 사역을 둘러보는 기회이자, 지하교회 그루터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50주년기념관 1층에선 자유인예배부가 주최하는 바자회가 열렸고, 활기찬 자유인 성도들의 모습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형신 목사님(북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말씀을 전한 북한선교주일 찬양 예배는 북한선교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북측통일의 염원이 흐려져 가는 이 시대에 열린 2024 북한선교 대회는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북측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소서! **만남**



탁구공에 복음 신고 열방으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느 날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구나' 감동했습니다.

탁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교 방법에 비해 스포츠 선교가 갖는 강점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비교적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한마음으로 묶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선교지경 넓히려 양영자탁구선교회 발족

최근에 제가 받은 탁구라는 재능과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고심하며 조언을 구하던 중에, 저의 이름을 딴 탁구선교회를 만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비영리 법인인 양영자탁구선교회를 발족했습니다.

요즘의 스포츠 선교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비행기의 발달로 대부분의 선교지는 길어야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수많은 나라와 정부가 민간인 차원의 스포츠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나라마다 대중화가 이뤄져서 현지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접착점이 되었습니다. 또 스포츠를 통한 만남은 쉽게 친밀감으로 이어지고, 친밀감은 신뢰감으로 발전하기 일쑤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선교했던 내몽고에서 선수를 가르치다가 귀국하는 길에 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지금은 이은혜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람되었던 것은 이 제자가 선교지에서 믿기로 작정한 이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현지인 섬기고 기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우리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현지인을 만났을 때 기술을 전수하고 수준을 끌어 올려주는 세사적 차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보물인 복음을 전달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양영자 선교사
양영자탁구선교회 회장
88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1 네팔에서 탁구선교를 펼친 양영자 선교사
2 영락교회 스포츠선교회 '영락스' 회원들과



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차씨에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재능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지에 심고 전파하며 현지인을 섬기고 기도한다면, 그들 가운데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나” 물으시는 하나님

저는 탁구선교 비전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해외 여러 곳을 순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네팔, 캄보디아, 대만, 몽골 등 여러 곳에서 탁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지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은 현지의 정부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국의 탁구 발전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자주 와서 더욱 활발히 주민들과 접촉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몽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탁구가 선교의 강력

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실제로 요즘엔 탁구선교 같은 스포츠가 복음 전파와 해외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나 홀로 외롭게 사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스포츠는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만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접착점이 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모이게 하고 열광하게 하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제외한다면 남아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출애굽기 4:2)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아버지, 롱 굿바이

군 생활 중 찾아온 시련

2016년,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은 초가을, 유격훈련이 한창일 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필자는 장교로 군 복무를 하여 언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재명아, 아빠 맞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후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훈련 중 구석에서 전화를 받으며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온 아버지의 병명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

‘내 머릿속에 지우개’ ‘투명인간 최장수’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발병 후 3~10년 사이에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인지능력, 기억력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사라진



안재명 전도사
중구·용산교구
목회행정

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군 생활 중에도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 그런데 휴가는 언제 와?” 이미 주말에 휴가를 다녀와 아버지를 만나고 간 주간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가족이라는 것이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

담당 의사는 “5년이면 상태가 많이 나빠지실 겁니다”라고 5년의 기간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된 후 슬퍼할 틈 없이 든 마음은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는 길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휴가 때마다 아버지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 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한 것은 십 년에 걸친 아버지와의 이별이기도 하다”

(『아버지, 롱 굿바이』- 모리타 류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읽은 책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롱 굿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아버지

에 대한 걱정보다는 함께 남은 시간을
즐겨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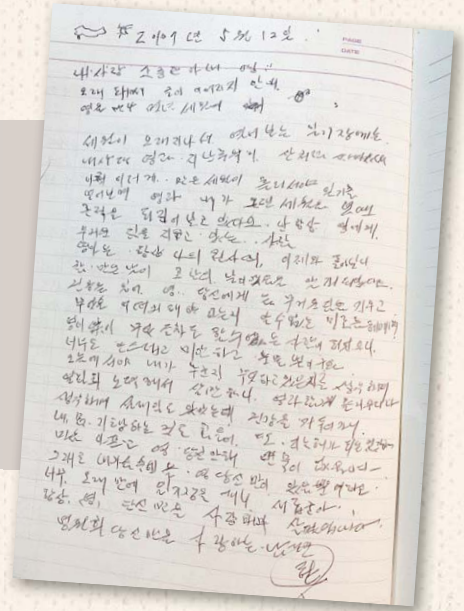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고 그 과정이 길
다고 이별이 덤덤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간병 과정, 왜소해진 아버지의
뒷모습, 불쌍한 아버지의 인생, 기억을
잃어가는 슬픔 등 가슴 아픈 일도 많았
습니다. 언젠가 읽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는 2017년(발병 후 1년쯤 되었을 때) 날
짜로 기록된 아버지의 편지가 남겨져 있
었습니다. 꼬불꼬불한 글씨를 보자니, 하
루에 몇 번 안 되는 아버지 본인의 상태를 인지할 때 작
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
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함이 가득 표현되어 있었습니
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결
국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픔을 가진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작년 5월, 저의 결혼식 후 며칠 뒤 오랜 병마
와의 싸움을 마치고 소천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남
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
는 일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 롱 굿바이』
마지막 즈음에 쓰인 구절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보냈
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는 구절입니다.

영락교회 부임 후 며칠 되었을 때 사무실에 선물 하나
가 놓여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신 것



입니다. 그분은 파킨슨병에 걸리신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습니다.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기쁨의 순간도 반드시 있을 것입
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
명을 귀히 여긴다면, 삶이 주는 걱정보다는 우리를 이끄
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
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욥기 1:21) **만남****

50년 나이롱 신자 “이제 옵니다”



어린 시절 내게 교회는 특별한 곳

주일 해질녘 영락 봉사관 앞마당은 분주한 헤어짐이 빠져나간 후 고요해진다. 저녁 집사 교육을 받고 정문을 나서며 한동안 잊고 살던 이런저런 교회의 추억이 떠오른다. 성산동의 작은 교회 앞마당, 여름 수양회, 성탄전야 새벽송, 문학의 밤, 구역예배 풍경... 내 유년 시절 기억의 대부분은 교회와 맞닿아 있다. 국민학교 4학년 여름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우연히 간 게 시작이었으니까 딱 50년이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는 내게 특별한 곳이었다. 너나없이 가난했던 그 시절 교회에 가면 좋은 게 참 많았다. 신앙이란 묵직한 단어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친구도 생기고 새로운 걸 보고 배우는 게 즐거웠다.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제법 뜨거웠던 적도 있던 것 같다. 대학 진학 전까지는 말이다.

세상에 물든 삶... 감사할 줄 몰랐다

스무 살 대학생이 되며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 갔다. 교회가 갑갑해지고 부정적인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 아닌가 회의가 들던 무렵이었다. 세상을 더 많이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자위했다. 그렇게 사람들 몰려가는 큰길로, 복적이든 세상에 물들어갔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두 딸의 아빠가 되고... 직장이 일요근무를 하는 곳이라 주일에 교회 안 갈 핑계 대기도 쉬웠다. 기독교에 비판적인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일이 잦아졌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습관적으로 썼지만 나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였다. 죄가 많아야 은혜도 많으며 스스로를 두둔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영적으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건조한 나날이었다.



정용성 성도
동대문·중랑교구
홍보출판부

인생 2막 시작하며 건조함에 물기가 생기자

정년퇴직하고 그렇게 인생 1막은 끝났다. 어깨 위에 얹어진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쁘진 않았다. 이젠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해볼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와중에 행운(?)이 찾아왔다. 아내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내가 홍보출판부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순전히 아내의 외교 덕분이었다. 사회에서는 감히 어울릴 수 없는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시는 모습에 내 안의 허들도 점점 낮아졌다.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인 모양이다. 봉사를 시작한 뒤 매달 사나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목사님들의 글과 성도님들의 간증문을 읽으며 순전한 단어들을 길어 올리느라 고민하게 된다. 그런 순간만큼은 정결해지는 느낌이다. 건조한 마음에 물기 같은 게 생겼다. 직장생활 땀 거의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다. 세상을 대하는 시니컬한 태도도 조금 바뀐 것 같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막고 있는 담장 한 편이 무너진 듯하다.

잘 섬기는 '행복한 집사'로 가는 첫발을 떼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집사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처음엔 평신도도 언감생심인데 웬 집사?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주변에서 “추천할 때 해야지 나이 더 들면 불러주지도 않는다”며 강권해주신 분들 덕분에 무모한 용기를 냈다. 8주간 매주 일요일 교회공동체와 청지기에 관해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웠다. 과제 독후감 책으로 <행복한 집사>를 골랐다. 집사도 만만찮는데 행복한 집사여야 한다니... 이제껏 행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 감사할 줄도 몰랐다. 책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일하는 사람을 곤충에 빗대어 예시하고 있는데 정말 뼈 때린다. 꿀벌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 꼭 필요한 사람, 개미처럼 부지런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거미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나는 꿀벌이고 싶다. 성령 믿을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다. 잘 섬기는 행복한 집사의 꿈을 품고 고단한 첫발을 떼다. 행복해지고 싶다.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조용히 다짐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만남**





더위엔 냉면, 건강하게 ‘호로록’

냉면은 한국의 인기 있는 차가운 면 요리로,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하며, 칼로리도 높지 않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냉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오란 권사
중구·용산교구
홍보출판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홈메이드 물냉면(비빔냉면) 건강 레시피

- ① 육수를 끓인 후 기름을 걷어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② 육수를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다.
(비빔냉면 양념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식초, 참기름을 섞어 만든다.)
- ③ 냉면의 면을 2-3분간 삶은 후, 찬물에 여러 번 헹구서 전분을 제거하고 차갑게 만든다.
- ④ 그릇에 면을 담고 차가운 육수를 부어준다.
- ⑤ 얇게 썬 오이, 배, 삶은 달걀, 무 절임, 김치를 곁들여 올린다.
- ⑥ 식초, 겨자 등을 개인 취향에 맞게 추가한다.

단짠 줄이고 고명은 다양하게

냉면 한 그릇의 영양소는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칼로리는 620Kcal, 탄수화물 130g, 단백질 15g, 지방 4g, 식이섬유 3g, 나트륨 2,50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하루 권장량과 비교해볼까요? 칼로리는 하루 권장량의 31%로 한끼 식사로 적당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의 28%이며 지방은 8%로 낮아서, 냉면은 지방 함량이 낮은 탄수화물 위주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100%를 훌쩍 넘는다는 점과 식이섬유 함량이 12%로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냉면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는 법

- 겨자와 식초를 활용해 맛을 내고 소금 사용을 줄이세요.
- 비빔냉면은 양념장을 적게 사용하고, 설탕 대신 건강한 대체감미료를 써보세요.(설탕 대신 단맛을 주면서도 칼로리나 혈당을 높이지 않는 대체감미료로는 자일리톨, 스테비아 추출물, 시트러스 추출물, 알룰로스, 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반면, 꿀이나 과일청은 설탕과 비슷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감미료로 볼 수 없습니다.)
- 물냉면은 국물을 적게 드시고, 대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보충하기

- 오이, 배, 무 절임, 김치 등 다양한 채소 고명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과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고, 포만감도 줄 수 있습니다.
- 냉면을 먹은 후 과일을 먹어서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 추가하기

-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다면 삶은 달걀, 닭고기, 소고기를 추가하세요. 고기를 삶으면 지방이 빠져나가서 구워먹는 것보다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메밀함량 높아야 혈당관리 쉬워

혈당이 높아 걱정하시는 분들은 혈당지수를 꼭 고려해 주세요. 전통적인 냉면은 주로 메밀가루로 만듭니다. 메밀가루는 혈당지수가 낮아서 혈당관리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쫄깃한 식감을 더하기 위해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섞기도 합니다. 전분가루 대신 밀가루를 섞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분이나 밀가루를 섞으면 냉면의 혈당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관리를 위해서는 메밀가루 비율이 높은 냉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지수 참고하기

- 혈당지수(Glycemic Index,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당지수가 낮을수록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 메밀가루의 혈당지수는 55로 낮은 편입니다.
- 고구마 전분의 혈당지수는 65로 중간에서 높은 정도이고, 감자 전분의 혈당지수는 70~80으로 더 높습니다.
- 밀가루의 혈당지수는 60~70 정도로 전분보다는 낮지만 메밀가루보다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 달걀, 고기 등의 고명을 많이 넣고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거나 천천히 먹는 것도 혈당 관리에 중요합니다. 맛있게 냉면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만남**

행진하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특별금요산상기도회

목양부

특별금요산상기도회가 지난 6월 28일(금) 1차 집회를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영락기도원에서 열린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제64회 산상기도회의 열기를 이어가며 동시에 예전 산상기도회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금요산상기도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락기도원과 교회 본당 이원 중계로 진행된 금요산상기도회는 좀 더 많은 성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목



양부는 차수별로 해당 교구를 선정하여 해당 교구 성도들은 기도원 현장집회 참석을 권유했고, 그 외 교구들은 교회 본당에서의 온라인 집회에 참석토록 안내했다. 이번 금요산상기도회에서는 1차 집회 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광승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에 이어 장신대 김태섭 교수(2차),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3차)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2(강동·송파), 5(관악·동작·금천), 7(서대문·은평), 9(마포·영등포), 12(강북·도봉), 13(서초)교구를 중심으로 열린 1차 집회에서 광승현 목사는 '지금에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마태복음 5:4, 누가복음 23:28)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광 목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영락교회를 위해 드렸던 선진들의 애통의 기도와 자녀세대의 믿음을 위해 흘렸던 부모세대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자"고 전하면서 "교회와 민족, 복讎 땅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교 후 이성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합심기도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세계를 위해, 교회와 가정·개인을 위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했다. 영락 공동체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특별금요산상기도회는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여정이 될 거라 기대된다.



2차 7월 5일(금)

김태섭 교수(장신대 신약학)

'성도의 예배'
(마태복음 2:1~12)



3차 7월 12일(금)

김호권 목사(동부광성교회)

'담장을 넘는 인생'
(창세기 49:22~26)

라커룸에서 시편을! 하반기맛이 특별새벽기도회 열려

예배위원회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6월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매일 오전 6시(토요일은 6:30) 본당에서 열렸다. 라커룸에서 시편을!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열린 이



번 기도회는 2024년의 절반을 보내며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길 소망하는 영락의 가족들로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새벽기도회 기간 시편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특별히 상반기를 힘들게 달려온 성도들에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도들은 2024년의 하프타임인 라커룸에서,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을 만나 '시편 118편의 시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여름사역을 위한 비전예배

교육부

교육부 여름사역을 위한 비전예배가 지난 6월 30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비전예배는 교육부 연중사역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외 하기선교 및 비전트립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련됐다. 방덕종 목사(교육전담)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구자희 권사의 기도, 박지운 목사의 설교, 김운성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자기를 부인하고'(마가복음 8:34-35)라는 제목의 박지운 목사 설교는 여름사역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중·고등부 비전트립팀과 대학부 해외선교팀의 특송은 참석한 교회학교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



전을 심어주었다.

교육부 산하 13개 부서의 여름사역은 7월 6일(토) 영아부 성경학교와 베드로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14일(수) 청년부 하기선교봉사까지 이어진다.

진도 지산교회 새성전 헌당 감사예배 드려

제1여전도회

제1여전도회(회장 장은희 권사)는 지난 5월 31일(금)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재 지산교회(담임 김대영 목사) 새성전 헌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선교부와 1여전도회 임원 및 실행위원 50여 명과 지산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헌당예배는 김대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1여전도회 회장 장은희 권사 기도, 1여전도회 임원 및 지회장단 특송, 김운성 위임목사의 설교, 지산교회 건축위원장 김양예 장로의 헌당 경과보고 후, 김대영 목사의 봉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축하 순서에서는 김강순 목사(평안교회)의 축사, 진도 여성합창단의 축가 후 김대영 목사가 “새로운 성전이 지산마을과 진도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집이자 많은 기도가 울

러지는 거룩한 터전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989년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산교회는 35년 만에 기존 예배당 옆 부지에 예배당(213m²) 및 친교실, 방송실 등을 새로 지음으로써 농어촌교회의 환경을 개선했다.

커피와 와플로 전하는 예수님 사랑, 군선교 ‘푸드트럭’ 기증

제2여전도회

제2여전도회(회장 고은수 권사)는 지난 6월 26일(수) 김덕운 은퇴권사의 후원을 통해 미사일사령부 통일대교회에 커피와 와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기증했다. 미사일사령부 소



속 윤다윗 군종목사는 차량 출고에만 5천여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 이 푸드트럭을 통해 예하 부대에 속한 5개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디저트를 제공하는 위문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교회 마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푸드트럭이 요긴한 군선교 도구가 될 것”이라며 “예수 복음도 한가득 싣고 힘차게 달리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50년간 군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시모 김덕운 은퇴권사의 뜻을 이어 푸드트럭 기증에 동참한 신은정 장로는 “군선교 사역을 위한 푸드트럭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통일대교회는 푸드트럭을 후원한 김덕운 은퇴권사, 신은정 장로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찬양으로 복음의 향기를! 호산나찬양대 순회연주

음악부

호산나찬양대(지휘 장세완, 반주 전은배)는 7월 12일(금)부터 15일(월)까지 대전광역시와 경남 지역에서 순회연주를 펼친다.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순회연주는 12일(금) 저녁 7시 30분 대전 대덕교회(유재경 목사 시무)를 시작으로 13일(토) 오후 3시 경남 산청문화예술회관, 14일(주일) 낮 11시 30분 진주교회, 14일 저녁 7시 양산중앙교회(정지훈 목사 시무)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호산나찬양대는 이번 공연에서 문형권 작곡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장태승 편곡 〈생물과 같은 보혈은〉, 하이든의 〈Gloria in excelsis〉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39회 짝을 맞이하는 호산나찬양대의 순회연주는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39주년 영락교회

제39회 호산나찬양대 순회연주
Utmost Precious Gift of All
가장 귀하신 분

Gloria in Excelsis / Joseph Haydn
손백을 찬! / arr. 박시중
생물과 같은 보혈은 / arr. 장태승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 문형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작유민

출연 호산나찬양대, 호산나오케스트라

지휘 장세완 반주 전은배

2024. 7. 12 FRI - 7. 15 MON

- 7. 12.(금) 19:30 대전 대덕교회
- 7. 13.(토) 15:00 산청문화예술회관
- 7. 14.(일) 11:30 진주교회
- 7. 14.(일) 19:00 양산중앙교회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만남 카페 공간 구성을 위한 디자인 공청회

80주년 기념사업회

만남 카페 및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공간 재구성을 위한 디자인 공청회가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80주년기념사업 중 세대 간 소통과 모임을 위한 확



정사역으로 진행 중인 교회 공간 재구성을 위해 코이노니아 공간 분과에서는 1차적으로 공개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성도 대상 설문과 공청회를 실시했다. 코이노니아 분과는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소통과 심, 만남을 위해 열린 교회 공간, 크리스천 문화공간을 핵심가치로 지향하며, 장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과 북카페 존으로 재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거대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 특성에 부합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수평적 쌍방향 공간, 평신도 활동을 활성화하는 이웃 사랑의 공간 조성을 연내 착공과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경직 목사와 서울 송실 세움 70주년 특별전



송실대 개교 127주년 및 재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한경직 목사와 서울 송실 세움 70주년' 특별전이 7월 7일(주일)부터 8월 31일(토)까지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1897년 평양 송실학당으로 시작한 송실대는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한 뒤 1954년 한경직 목사의 주도로 서울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당시 교사(校舍)가 없었던 송실대는 영락교회 예배당을 빌려 개교식을 진행했으며, 평양 송실 16회 졸업생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재건 송실의 초대학장으로 취임했다. 송실대는 1957년 현재의 상도동 캠퍼스 건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3년여간 영락교회 부속 건물을 임시교사로 사용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5월 송실대가 기증한 한경직 목사의 학장 재임 시절 대형 동판(사진), 재건된 서울 송실의 개교식 사진 등이 공개된다.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총장, 본 교회 방문

조나단 리 월튼 프린스턴신학교 총장이 지난 6월 9일(주일)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월튼 총장은 프린스턴신학교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총장으로 2023년 제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3부 예배에 참석한 월튼 총장은 예배 전 김운성 목사를 예방했고, 예배 후에는 한경직목사기념관 내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김운성 목사는 월튼 총장과의 환담 석상에서 〈한경직 목사 평전〉 영문판의 출판과 보급에 프린스턴신학교의 협력을 부탁했다.

지난 1812년 미국 최초의 장로교 계열 신학교로 설립된 프린스턴신학교는 영락교회와 깊은 인연이 있다. 한경직 목사가 1929년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했고, 영락교회는 1980년대 후반 석좌기금과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한경직 석좌교수제' 운영과 신학 장학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초대 '한경직 석좌교수'로 이상



현 박사(2023년 작고)가 역임했고, 현재는 최기주 박사가 재직하고 있다. 금년도 장학생에는 목회학 석사과정(M.Div.) 이진주 학생이 선정되었다.

기독교 여성이여 도약하라! 여성안수 30주년 기념 여성대회

교계소식



성 지도력 성장의 길을 열었다. '퀵템 점프, 여성이여 도약하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994년 교단에서 여성안수가 허락된 이래 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여성사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에서 사역 중인 여성 목회자와 총회 산하 7개 신학대 여학생 등 1,200명이 참석했다. 총회 여성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성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목)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여성안수 30주년 기념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예장 총회는 1933년 함남노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안수 청원이 시작된 이후 61년만인 1994년 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가 통과됐고, 이듬해 법제화함으로써 여

회사에서 "여성 안수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리더십과 사역에 봉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적 차원의 순종이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여성 안수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자"고 권면했다. (사진출처 한국기독교공보 유튜브 채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7일(금)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과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가칭)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박홍준 이사장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며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영등포구와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상호 협력하자"라고 전했다. 9월에 개원 예정인 영등포동 종합사회복지관



은 서울시의 100번째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빛으로 포착한 찰나... 같은 공간 다른 느낌



The Water Lilies- The Clouds

1920-1926,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이 그림은 모네가 1890년대 후반부터 1926년 86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30년 동안 매진했던 수련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지베르니에 위치한 연못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그림입니다. 모네는 자연채광이 좋은 거대한 실내 공간에서 작업을 했는데, 모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오랑주리 뮤지엄도 그것을 모티브로 2006년 리뉴얼을 통해 천장에 자연채광을 최대한 실현해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태양의 움직임과 날씨의 흐리고 맑음에 따라 같은 수련 그림도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7/8월호 통권 605호

발행 2024. 07.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포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7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8월은 방학입니다



퀵바디스 (Quo Vadis, 1951) 12 상 87분, 하 82분 7일(상), 14일(하)

감독: 머빈 르로이 출연: 로버트 테일러, 데보라 카, 피터 유스티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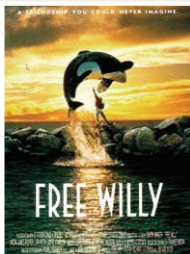
서기 64년,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로마 황제 폭군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한 후 폼페이이라는 매춘부를 황후로 세운다. 로마 제국의 제14군 사령관 마커스 비니키우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 궁정 축제에서 아름다운 여인 리지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전 군대장관의 입양 딸로 독실한 기독교인인 리지아는 마음속으로 마커스를 사모하지만 그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점 때문에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한다.



코리스 (Les Choristes, 2005) ALL 95분 21일

감독: 크리스토퍼 파라티에 출연: 제라르 쥐노, 프랑수와 벨레앙, 장 밥티스테 모니에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프랑스 마르세유의 작은 기숙학교. 면회가 있는 토요일마다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전쟁고아 페피노,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일으키는 모항주. 모두가 돌아갈 곳 없이 쓸쓸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학교에 미완성의 악보를 손에 든 마티유가 임시직 교사로 부임해온다. 마티유는 부임 첫날부터 아이들의 거친 장난과 교장의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에 맞닥뜨린다. 마티유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포기했던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를 가르친다. 점차 아이들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면서 모항주는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고 페피노는 마음의 문을 연다. 하지만, 문제소년 몽당의 전학으로 기숙학교는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프리윌리 (Free Willy, 1994) ALL 112분 28일

감독: 사이먼 윈서 출연: 케이코, 제이슨 제임스 리처, 로리 페티, 제인 앳킨슨

제시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거리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소년이다. 좀독질로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던 제시는 어느 날 마을의 수족관에 들어가 친구와 벽에 낙서를 하다 발각된다. 제시는 소년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지만 그의 양부모 덕분에 수족관 청소로 벌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제시는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 수족관 최고의 스타이자 신비에 싸인 고래 윌리다.



클로드 모네

구름들

1914~1926,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